

부산지역 소와 돼지에서 *Toxoplasma gondii* 항체 양성률에 관한 조사 · 연구(2017-2018)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인수공통전염병인 톡소플라즈마의 감염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

II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 기간 : 2017년 1월 ~ 2018년 12월 (2년)
- 연구 대상 : 부산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및 돼지의 혈청 601건
- 연구 방법 : 부산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및 돼지의 혈청을 대상으로 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률을 조사.
연구
- 연구 내용 : 1) 문헌조사 2) 실험방법 정립 3) 예비실험
4) 시료채취 및 검사 : 소 및 돼지의 혈청 601건(소 301건, 돼지 300건)

III 연구결과

- 소의 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농가별로는 46농가 중 38농가(82.6%)가 양성이었으며 개체별로는 301두 중 99두(32.9%)가 양성을 보였다. 돼지의 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농가별로는 23농가 중 19농가(82.6%)가 양성이었으며 개체별로는 300두 중 44두(14.7%)가 양성으로 나타났다.
- 지역별 검사 결과 소의 경우 강서구에서는 14농가 중 13농가(92.9%), 108두 중 31두(28.7%)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기장군에서는 28농가 중 21농가(75.0%), 164두 중 57두(34.8%)가 양성으로 나타났다. 금정구에서는 4농가 중 4농가(100%), 29두 중 11두(37.9%)가 양성으로 나타났다. 돼지의 경우 강서구에서는 9농가 중 7농가(77.8%), 112두 중 26두(23.2%)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기장군에서는 11농가 중 10농가(90.9%), 128두 중 13두(10.2%)가 양성으로 나타났다. 사하구에서는 3농가 중 2농가(66.7%), 60두 중 5두(8.3%)가 양성으로 나타났다.
- 연령별 검사 결과 소의 경우 1세 이하에서는 45두 중 10두(22.2%), 2세 이상 3세 이하에서는 111두 중 52두(46.8%), 4세 이상 5세 이하에서는 72두 중 22두(30.6%), 6세 이상 10세 이하에서는 68두 중 13두(19.1%), 10세 초과에서는 5두 중 2두(40.4%)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. 돼지의 경우 모돈에서는 49두 중 15두(30.6%), 비육돈에서는 251두 중 29두(11.6%)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.
- 계절별 검사 결과 소의 경우 봄에는 85두 중 41두(48.2%), 가을에는 216두 중 58두(26.9%)에서 양성

이 나타났으며 돼지의 경우 봄에는 165두 중 16두(9.7%), 여름에는 14두 중 4두(28.6%), 가을에는 121두 중 24두(19.8%)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.

IV | 정책연계방안

- 부산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 및 돼지를 대상으로 톡소플라즈마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가축 질병 예방 및 가축 방역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

V | 활용계획

- 톡소플라즈마에 대하여 축주들에게 홍보하고, 감염 실태를 파악하여 농가에 결과를 통보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함